

지역 소식 통

제15회 부안가을愛국화 전시회 자연마당서 개최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은 가을 정취가 한창 무르익는 11월, 해뜰마루 정원에 위치한 자연마당에서 제15회 2025 부안가을愛국화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10일간 길여가는 가을, 국화의 향연이란 슬로건 아래 국화향 가득 담은 정원으로 꾸며진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부안군농업기술센터와 국화올타리가 함께 준비했으며, 국화분재, 조형작품 등, 약 2만여 분의 국화가 전시되며, 가을 정취를 흠뻑담은 판화과 공연과 다양한 포토존이 조성되어 방문객들에게 가을의 낭만과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피칸에너지를 만들기, 청국장 만들기 보리빵 만들기 다도체험 등)과 조경수 판매 및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등 관람객이 참여할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서 특별교부세 확보

고창군은 지난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60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결과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매년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것으로 중앙행정기관, 전국 지자체, 교육청 등 총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관리,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3개 분야에 대한 평가 후 5등급(가~마)으로 분류하는 제도이다.

군은 '민원취약계층 및 민원담당자 보호', '민원정보 제공 및 민원반영 운영', '고충민원 해결·예방 노력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년(2023년) 평가결과 B 등급서 2단계 상향된 나 등급을 획득했다. 이러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월 노력도 우수기관으로 행안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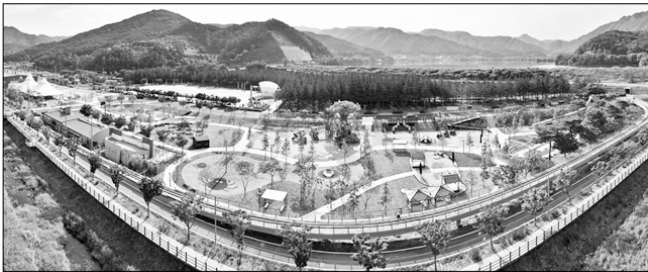
데이터가 입증한 정읍 기적의 놀이터

개장 3달 만에 지역 명소로... 내장산 문화광장 방문객 17% '경증'

지난 9월 1일 새롭게 문을 연 '정읍시 기적의 놀이터'가 개장 약 3달 만에 지역 명소로 자리 잡았다. 정읍시가 방문객 통신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놀이터가 위치한 내장산 문화광장 일원 방문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개장 전후 약 3달간의 방문객 통신키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시간대별 방문객 분석 결과, 평일에는 일평균 약 2000명, 주말·공휴일에는 약 7000명 이상 방문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에는 가족단위 이용객이 집중돼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방문 추이를 주간 평균과 비교한 결과, 거주지를



불문 10대 이하 유아층과 30~40대 주양육층의 방문이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기적의 놀이터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주, 광주, 익산, 군산 등 외지인들도 많이 찾는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기적의 놀이터는 내장산 문

화광장 일대의 관광 시너지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놀이터가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 실내 복합 놀이시설인 천사하어로즈 등 지역 명소들과 인접함에 따라 하루 또는 1박 2일 코스로 방문하는 체류형 관광객 유입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국내 · 외 자매도시 방문으로 우정과 교류의 장 열려

제52회 고창모양성제, 대표축제 통한 상생협력 · 문화교류...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 실현

'제52회 고창모양성제'가 화려하게 개막한 가운데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대표단이 고창을 방문해 축제의 성공을 함께 기원하며 우정을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모양성제에는 국내 자매도시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북구, 광진구, 남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경상북도 상주시, 강원자치도 정선군, 전라남도 장흥군 등 7개 도시와 대한민국 해군 고창함, 일본 시마네현(四万十町) 등 총 9개 도시·기관이 참여했다.

특히 일본 시마네현에서는 나가오 히로노리 정장과 오가타 마사쓰나 의장을 비롯한 방문단이 직접 고창을 찾아 개막식에 참석하고, 고창읍성 일원과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며



13년째 이어온 양 도시 간 깊은 우정과 문화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각 자매도시 대표단은 개막식 주요행사 및 자매도시간 교류의 장에

참석해 상호 협력 확대, 관광·경제 교류 활성화 등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지황'으로 미국 시장 문 열어

LA서 30만불 협약 · 1.7억 수출 성과

정읍시가 대표 농특산물인 지황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3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1억 7000만원 상당의 지황 가공식품 수출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유호연 부시장(정읍지황음식문화사업단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 6명은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현지를 방문, LA 한인축제 홍보와 운영 등을 통해 정읍지황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수출 규모는 약 1억 7000만원이다. 수출 품목에는 정읍지황을 원료로 한 지황차, 숙지황 현미반, 숙지황 현미스낵을 비롯해 정읍생화차, 생화시리얼, 생화누룽지 등 가공식품 10여



종이 포함됐다.

또한 시는 이번이 개최된 LA 한인축제에서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관을 운영하며 다양한 정읍지황 가공식품을 선보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바이오 · 청년창업 허브로’

정읍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순항'

정읍시가 총사업비 365억원을 투입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된 이 사업은 국비 160억원을 확보했으며 10월 중 중앙투자심사 등 주요 사전 절차를 모두 마쳤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갈 전망이다.

시는 바이오와 청년창업을 키워드로 80실 이내 기업입주공간인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함께, 신장동 연구개발복구의 3대 정부출연기관·미생물센터의 바이오산업 기술사업화 지원기능을 연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바이오기업을 적극 유치해 농축산바이오는 물론 의료바이오까지 아우르는 농생명 바이오산업의 육성기반을 탄탄히 다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을 시작, 2029년 완공·2030년 기업 입주

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입주공간 제공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해가고 있다.

초기·1인 창업단계의 기업입주를 위한 연구기관 보육동·전문투자사(AC·VC) 중심의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들 기업의 성장에 따른 입주공간인 지식산업센터와 공유인프라(아파트형 스마트공장), 성숙단계의 기업을 위한 산업단지 확장을 종합적으로 계획 중이다.

이화수 시장은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향후 산업단지 확장으로 초기창업부터 기업성장을 위한 단계별 입주공간을 확보하겠다"며 "기업의 입주로 해소와 기업활동을 통한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수)는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충남 당진시 일원에서 현장 활동을 통해 부안군에 필요한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섰다.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현장활동

부안군의회, 당진시 송전설비 현장 통한 의견수렴 · 간담회 진행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수)는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충남 당진시 일원에서 현장 활동을 통해 부안군에 필요한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섰다.

이번 현장 활동은 송전선로 설치지역을 통해 지역 갈등과 주민 피해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행정과 주민의 입장을 폭넓게 청취해 부안군의 실정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들은 345kV와 765kV 초고압 송

전설비가 설치된 당진의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지역 환경과 마을 구조, 지중화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폈으며, 해당 지역 주민 간담회와 당진시의회와의 정보교류를 통해 실제 대응 경험과 정책적 고려사항을 공유했다.

박병래 의장은 "현장을 찾고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야말로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부안군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고 군민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